

#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식

일시: 95년 6월 7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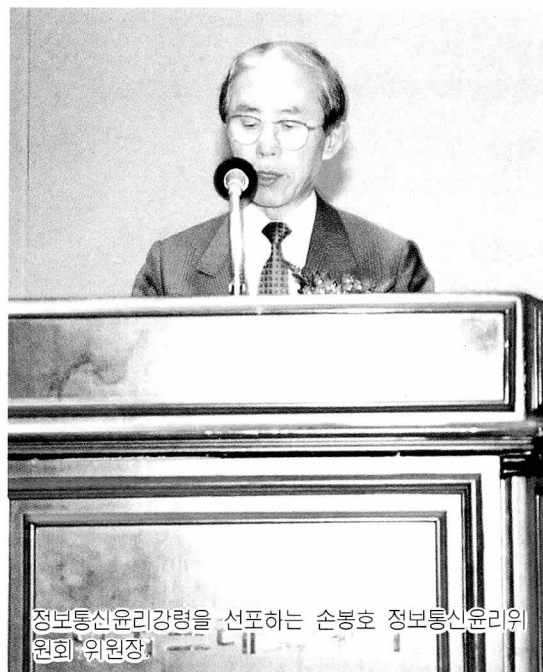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주관: 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식 기념 촬영모습. (좌로부터 강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이연숙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인보길 조선일보 상무이사,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손봉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윤상철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송기방 변호사, 안병희 서울대교수)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선포하는 손봉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 손봉호)는 지난 6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과 손봉호 위원장, 신범식 협회부회장 등 1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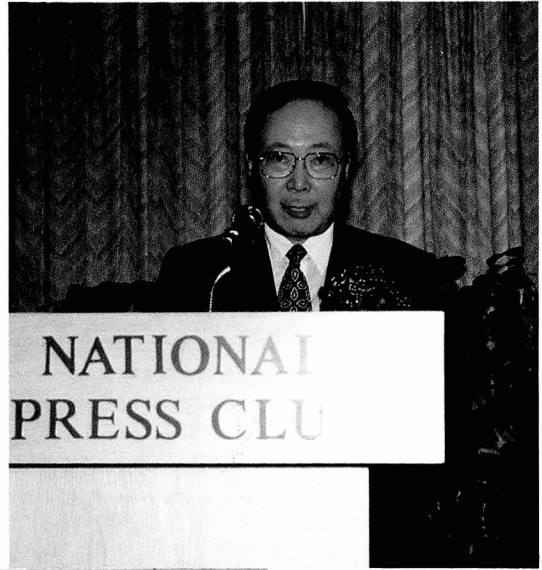
이날 선포된 정보통신윤리강령은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며 국민정서에 맞는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시민의식 형성에 앞장”한다고 밝혀 정보통신문화의 정착과 정보통신윤리 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윤리강령은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성실히 활용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용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모두는 정보시대의 주인이 되어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인류의 행복과 높은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

다”고 선언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선포식에 앞서 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식 기념 세미나를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윤리”를 주제로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정경수 경북대 교수는 “정보통신윤리 정립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연구소 소장이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대응 방안”을 김기태 한국방송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이 “정보통신윤리확산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발표했다. 또한 이 세미나에 이어 “정보통신윤리확립을 위한 토론”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날 행사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부, 조선일보사, 전자신문사가 후원했다. (관련기사 23쪽 참조)



▲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식에 이어 축사를 하는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



▲ 선포식에 앞서 진행된 「정보사회와 정보통신윤리」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건전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식 직후 건배를 하는 선포식 참석 귀빈들.



▲ 중국 우전부 제3차 한국시찰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중 정보통신관련 인사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우리협회는 중국시찰단에 한국방문 기념패를 증정했다.

### 한국 EDI 협의회 제3차 회의

우리협회 한국 EDI 협의회는 지난 6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김규수 부위원장(한국무역정보통신), 김동규 조사연구분과위원장(아주대학교), 김교덕 제도분과위원장(LG-EDS 시스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각 분과별 활동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CALS 분과는 CALS KOREA '95의 진행사항 설명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조사연구분과위원장인 김동규 교수가 연구과제인 EDI 표준화 추진체계와 EDI 이용실태조사분석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김교덕 제도분과위원장은 전자문서 인증에 관한 법적 효력에 대해 현재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전자명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포괄적 개념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분야에 관해 협회를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를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통신 임순철 국장과 데이콤 임순천 본부장이 새로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한국통신의 우송술 단장과 데이콤 오태용 이사는 해촉되었다.

### 중국 우전부 제3차 한국시찰단과의 오찬 간담회

우리협회는 중국 우전부의 한국시찰단 내한과 관련, 지난 6월 5일 남궁석 회장, 신범식 상근부회장, 정보통신부 모영주 사무관 등 13명의 한국측 대표와 Ni Yifeng 우전부전신총국 부국장 등 17명의 중국측 시찰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양국 대표간의 상견례와 우리측의 중국정보통신분야 진출에 따른 중국의 정보통신 현황 등 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

이번 중국 우전부 시찰단의 방한은 제2차 한·중통신장관회담에서 협의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4년 6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방한은 중국우전부인사에 대한 한국통신계의 이해제고 및 양국 통신분야 관계 증진으로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중국시장진출확대에 이바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중통신정책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의 토대를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시찰단은 데이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통신등을 방문했으며, 정보통신부의 업무 현황을 소개 받고, 통신개발연구원의 세미나등에 참석하는 등 우리측의 통신정책과 통신사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